

<알짜 국어 마무리 - 최종정리>

담당 강사 : 유대종

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의존 명사는 크게 형식성 의존 명사와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전자는 실질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희박하여 관형어가 필요한 의존 명사이고, 후자는 실질적 의미, 즉 수량 단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형식성 의존 명사는 의존 명사들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느냐에 따라 보편성, 주어성, 서술성, 목적성, 부사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특히 보편성 의존 명사는 뒤에 어떤 격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기 2>

-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다.
- 모자를 쓴 ㉢채 들어오지 마시오.
- 먹을 ㉣만큼 먹어라.
- 그곳에는 사람 열 ㉤명이 서있다.

- ① ㉠은 '것이, 것을, 것이다' 등 다양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보편성 의존 명사이다.
- ② ㉡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성 의존 명사이다.
- ③ ㉢은 주격 조사가 붙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주어성 의존 명사이다.
- ④ ㉣은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성 의존 명사이다.
- ⑤ ㉤은 수량 단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위성 의존 명사이다.

5. <보기 1>은 인칭 대명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을 읽고 <보기 2>의 인칭 대명사의 종류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인칭 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시 대상에 따라 지시 대상이 화자인 경우를 1인칭 대명사, 청자인 경우를 2인칭 대명사, 화·청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를 3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또한 특정 대상의 지시 여부에 따라 앞서 나온 3인칭 주어를 다시 반복할 때 사용하는 재귀 대명사,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가 있다.

<보기 2>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심은 소나무 묘목을 매우 소중히 가꾸셨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장난으로 그것이 뿌

리째 뽑혀 버렸어요. 아버님께서는 화가 나서 우리 두 중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어보셨죠. 동생은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잘못을 모른 척해 주었어요. 동생은 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그때만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인 때였죠.

- ① ㉠: 재귀 대명사
- ② ㉡: 미지칭 대명사
- ③ ㉢: 1인칭 대명사
- ④ ㉣: 3인칭 대명사
- ⑤ ㉤: 2인칭 대명사

15. <보기>의 밑줄 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 기>

품사란 일정한 문법적 성질을 가지는 단어끼리 부류 별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대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로 나뉜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 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② 노을이 오늘따라 매우 붉게 보인다.
붉은 태양이 오늘 이 사막에서 다시 뜰 것이다.
- ③ 바람이 아니 분다.
아니! 어디 있겠다는 말이냐!
- ④ 그 형은 마음 스스름이 크다.
우리 집 아이는 올해도 키가 크다.
- ⑤ 정호는 그 상황을 즐길 만큼 강심장이 아니다.
나도 그 사람만큼 공부할 수 있다.

12.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 되는 것만을 a~e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될 때 어간에 어미가 그대로 결합되는 형태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활용 될 때 어간의 자음이나 모음이 탈락한다고 모두 불규칙 활용이라 하지 않는다. 가령 '치르+어→치러'와 같이 일정한 환경에서 항상 '으'가 탈락하는 경우나, 받침이 'ㄹ'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인 '열+니→여니'과 같이, 일정한 환경(어간 ㄹ 뒤에서 ㄴ, ㅂ, 시, 오)에서 예외 없이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경우 등은 규칙 활용으로 본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뉜다.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누워 ㉠	누레 ㉡
하여 ㉢	우니 ㉣
불러, 올라 ㉤	따라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8. <국어사전>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의 ㉠~㉥에 쓰인 '다른'의 품사를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국어사전>

• 다른 「관형사」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는 단

• 다르다 「형용사」 [달라, 다르니]

【...과(와)】 《'...과(와)'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보기>

- ㉠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 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
 ㉢ 그녀의 외모가 평소와 다른 탓에 깜짝 놀랐다.
 ㉣ 늦게 도착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 쌍둥이들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자라난다.

- | | | |
|---|---------|---------|
| | 관형사 | 형용사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7. <보기 1>을 통해 <보기 2>처럼 관형어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보기 1>

- ㄱ. 그는 새 옷을 입었다.
 ㄴ. 그녀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ㄷ. 의회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

<보기 2>

- ㉠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한다.
 ㉡ 관형어는 문장 내에서 항상 생략할 수 있다.
 ㉢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어 관형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 앞과 뒤의 체언이 의미상 동격일 때 앞의 체언은 관형격 조사 없이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명사절- 2014수능A>

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1. <보기>의 표를 참조할 때 음운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꺠	ㅡ	ㅜ
중모음	꺡	꺢	ㅑ	ㅓ
저모음	ㅕ		ㅗ	

- ① '삼촌'을 '삼춘'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것, '부조'를 '부주'로 잘못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면, 입술을 오므리는 정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발음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②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한다는 현상은, 후설 모음과 전설 모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발음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③ '괜찮아'를 '괜찮어'로 잘못 발음한다면, 그것은 저모음을 중모음으로 잘못 발음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④ '아지랑이'를 '아지랭이'로, '홀아비'를 '홀애비'로, '창피하다'를 '챙피하다'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역행 동화에 속한다.
 ⑤ '어른'을 '으른'으로 '거지'를 '그지'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중모음을 고모음으로 잘못 발음하여 생겨나는 현상이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 보기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닭고[달코]’의 실제 발음에서는 음운의 탈락과 축약 현상이 차례로 발생하였다.
- ② ‘활고[할꼬]’의 실제 발음에서는 음운의 탈락과 교체 현상이 발생하였다.
- ③ ‘뱃[박]’의 실제 발음에서는 음운의 탈락 현상이, ‘삼[삼]’에서는 음운의 교체 현상이 발생하였다.
- ④ ‘와서[와서]’, ‘담가도[담가도]’는 각각 ‘오아서’ 및 ‘담그아도’에서 일부 음운이 탈락된 것이다.
- ⑤ ‘냥고[나코]’의 실제 발음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냐아[나아]’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발생하였다.

8.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의 한 예로 ㉠음운 축약이 있다. 자음 축약의 경우는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된다. 모음 축약의 경우 모음 ‘ㅣ’ 나 ‘ㅜ/ㅠ’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루게 된다.

- ① 그가 꿈쩍도 않던 돌을 움직이자 모두 놀랐다.
- ②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 ③ 기차 출발 시간에 잘 맞춰 나오니까 매우 편했다.
- ④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 줄 수 있겠니?
- ⑤ 오랜만에 친구들이 빠짐없이 와서 매우 즐거웠다.

<경음화 조건>

10. 다음 된소리되기에 관한 질문과 관련 표준 발음법 규정을 연결한 것이다. 연결된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질문	관련 규정
① ‘평등(平等)[평등]’의 ‘등’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갈등(葛藤)[갈등]’의 ‘등’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② ‘여덟과[여덜과]’의 ‘과’는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널개[널께]’의 ‘개’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어간 받침 ‘래, 래’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③ ‘개미집[개:미집]’의 ‘집’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옆집[엿집]’의 ‘집’은 된소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ㅂ(ㅃ, ㅍ,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뒤에

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④ ‘된밥[된:밥]’의 ‘밥’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아침밥[아침뻘]’의 ‘밥’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ㅌ,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⑤ ‘사기(士氣)[사기]’의 ‘기’는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인기(人氣)[인기]’의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오류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거칠은 별판으로 달려가자” 라는 노래 가사가 있다. 여기에 보이는 ‘거칠은’ 은 어법상 ‘거친’ 으로 해야 옳다. ‘ㄹ’ 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ㄴ, ㅂ, ㅇ, 시’ 앞에서 ‘ㄹ’ 이 탈락하므로 ‘거칠-’ 위에 ‘ㄴ’ 이 오면 ‘거친’ 이 옳은 어형이다. 이와 동일한 잘못은 ‘내밀은 손, 물들은 은행잎, 시들은 꽃’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어미 앞에 ‘으’ 를 잘못 붙여서 발음하다 보니 생겨났다.

- ① 가을바람에 하늘을 가볍게 날으는 은행잎!
- ② 기자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아 되물은 적이 있다.
- ③ 우리는 부풀은 꿈을 안고 내일의 희망을 노래했다.
- ④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울으니까 부끄럽다.
- ⑤ 아버님은 오래 시간을 끌으시다가 어렵게 말문을 여셨다.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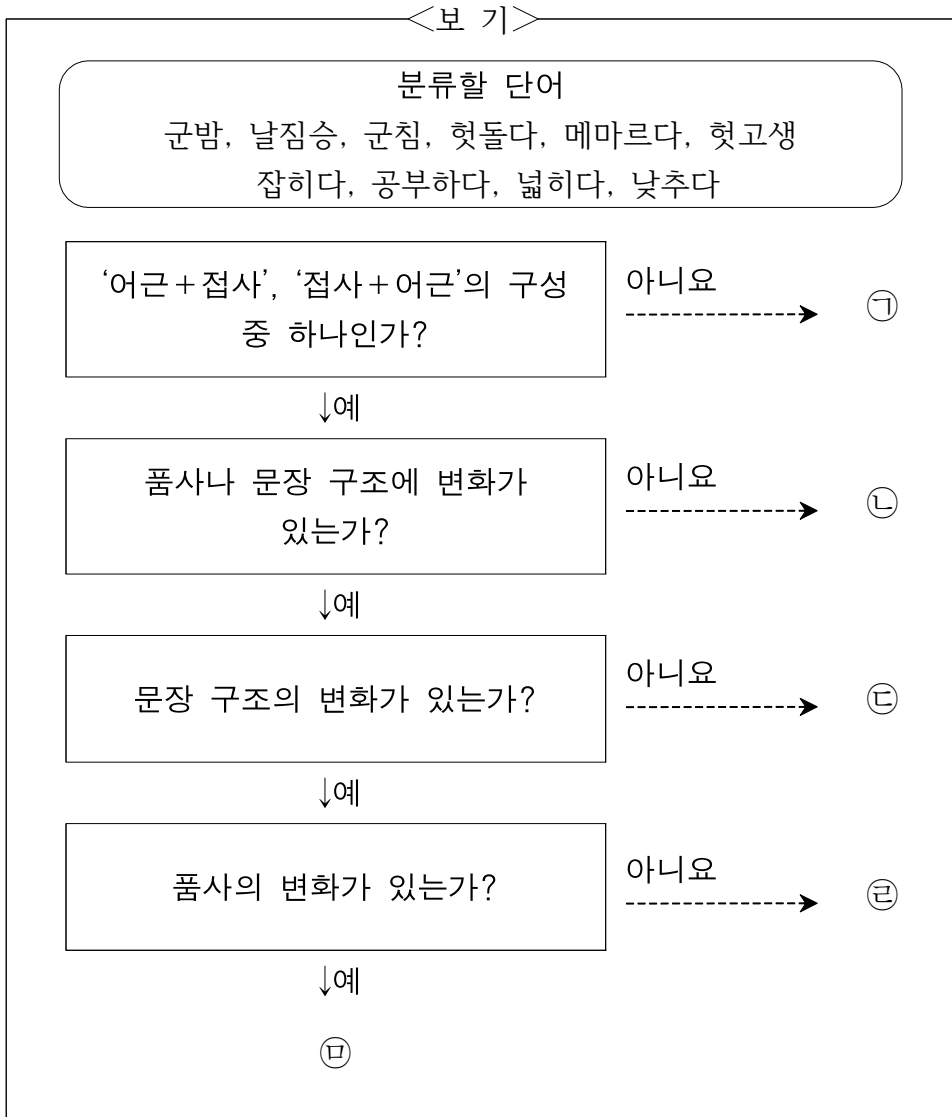
< 보기 >

형태소의 교체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음운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교체가 있는 한편, ㉠음운의 변동은 아니지만 음운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교체가 있고, 나아가 음운적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교체 또한 존재한다.

- ㉡ : 값[값], 값만[값만]
- ㉢ : 선생님의, 관호가
- ㉣ : 누가, 누구를
- ㉤ : 보거라, 오너라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12. <보기>는 단어를 분류하는 것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군밤'과 '날짐승'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기 때문에 ㉠에 들어가겠군.
- ② '군침'과 '헛돌다'는 모두 접사가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에 들어가겠군.
- ③ '메마르다'는 '헛고생'과는 달리 접사가 품사를 변화시키므로 ㉢에 들어가겠군.
- ④ '공부하다'는 '잡히다'와는 달리 접사가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문장 구조를 달라지게 하므로 ㉣에 들어가겠군.
- ⑤ '넓히다'는 '-히-'가 '낮추다'와 '-추-'와 마찬가지로 품사를 변화시키고 문장 구조도 달라지게 하므로 ㉤에 들어가겠군.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05.9)

< 보 기 >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들끼리 만나 새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어근 '날다'가 어근 '가다'를 만나 '날아가다'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뜻'이 어근 '사과' 앞에 붙어 '덜 익은'의 뜻을 더하면서 '뜻사과'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강'은 '마르다' 앞에 붙어 '심하게'의 뜻을 더하면서 '강마르다'를 만든다.
- ② '첫'은 '사랑' 앞에 붙어 '처음의'의 뜻을 더하면서 '첫사랑'을 만든다.
- ③ '새'는 '색시'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면서 '새색시'를 만든다.
- ④ '알'은 '보다' 앞에 붙어 '알게'의 뜻을 더하면서 '알보다'를 만든다.
- ⑤ '군'은 '밤' 앞에 붙어 '구운'의 뜻을 더하면서 '군밤'을 만든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합성어의 분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결합된 경우,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가령,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거나,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체언 앞에 관형사가 오는 경우, 용언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경우 등은 일반적인 단어 형성법에 맞기 때문에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한편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르지 않고 결합되는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병렬 합성어라고 하고, 두 어근 중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는 관계를 지닌 채 결합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또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 ① '논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로,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뛰놀다'는 동사와 동사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되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사업에 협조했다.'의 '물불'은 결합된 어근이 새로운 의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융합 합성어이다.
- ④ '돌다리'는 '돌'이 의미 관계상 '다리'라는 말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이면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그는 사업을 말아먹었다.'의 '말아먹다'는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뜻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며, 연결어미로 이어지기에 통사적 합성어이다.

[3-4] 다음 예문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 ㉡ 남편은 나보다 딸을 더 좋아한다.
- ㉢ 할머니께서 자두와 사과 두 개를 주셨다.
- ㉣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가 날 설레게 한다.
- ㉤ 그는 웃으면서 마주 오는 이웃에게 인사했다.

3. 위에 제시된 문장들의 의미가 중의성을 띠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않다'가 '다 오다'를 부정하는지 '오다'만을 부정하는지 불분명하다.
- ② ㉡: '남편'과 '내'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지 '나'와 '딸'을 비교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 ③ ㉢: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사과'만인지 '자두와 사과'인지 불분명하다.
- ④ ㉣: '아름다운'이 '그녀'를 꾸미는지 '미소'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 ⑤ ㉤: '웃으면서'가 '그는'의 서술어로 쓰인 것인지 '이웃'을 꾸미는 관형절 속에서 쓰인 것인지 불분명하다.

<높임 표현 -2014수능B>

8.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흥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능피주사>

16. 밑줄 친 부분이 피동사인 것은?

- ① 그는 남들을 잘 웃겼다.
- ②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고 있다.
- ③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 ④ 나는 흰 눈으로 덮인 산을 바라본다.
- ⑤ 두 귀를 종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

2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 된 것은? [3점]

<보 기>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1. ㉡의 용례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의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된다.
- ② 경제학과 경영학은 엄연히 구별되는 학문이다.
- ③ 토론 과정에서 비판과 비난은 구별되어야 한다.
- ④ 비전문가에게는 갈대와 억새의 구별이 쉽지 않다.
- ⑤ /ㄱ/와 /ㄷ/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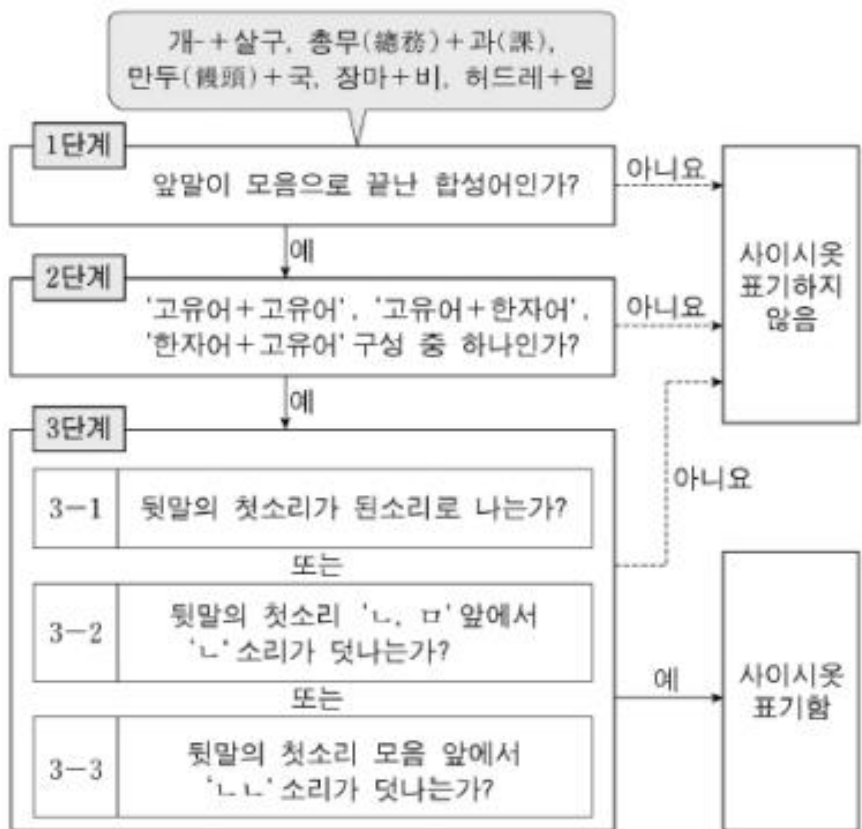
㉠

1. ㉠을 '금성(金星)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 셋 별' 처럼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 중에서 잘못된 것은?

- ① 유성(流星)은 빛을 내며 떨어진다. → 별뿔별
- ② 행성(行星)은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 → 잔별
- ③ 혜성(彗星)은 긴 꼬리를 끌면서 돈다. → 꼬리별
- ④ 항성(恒星)은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불박이별
- ⑤ 북극성(北極星)은 방위나 위도의 지침이 된다. → 길잡이별

1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과 합성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와 본래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함께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① '개+살구'의 구성은 '해+님'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모두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쓰며 이는 수식 관계로 구성된 비통사적 합성어로군.
- ④ '장마+비'의 구성은 1, 2단계 및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쓰며, 이는 통사적인 합성법을 따르는 단어들이군.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13.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참조하여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맞춤법 규정의 '사이시옷' 관련 규정〉

표준 발음법 제5항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케'는 [계]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민주주의의 의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 그는 저기 보이는 돌부처처럼 살이 쩌 버렸다.
㉢ '우리의소원'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 ① ㉠에서 '민주주의의 의의'는 [민주주의의 의이]로 발음할 수 없다.
- ② ㉠에서 '민주주의의 의의'는 [민주주의에 이이]로 발음할 수 있다.
- ③ ㉠에서 '민주주의의 의의'는 [민주주의에 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 ④ ㉡에서 '살이 쩌'에서 '쩌'는 용언의 활용형이 아니기 때문에, [찌]로 발음할 수 없다.
- ⑤ ㉢에서 '우리의'는 [우리예]로 발음될 수 있고,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로 발음할 수 있다.

15. 다음 표현들에 대한 수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장의 폐수를 분리하도록 한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 공장의 폐수를 분리하도록 한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대표적인 예이다.
- ② 전국을 휩쓸고 간 폭우로 인해 꽤인 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을 휩쓸고 간 폭우로 인해 괜 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③ 등불이 순식간에 밝혀졌다.
→ 등불이 순식간에 밝혔다.
- ④ 내가 예쁜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 내가 예쁜 사람을 소개해 줄게
- ⑤ 작년엔 준희는 애인에게 참여했다.
→ 작년엔 준희는 애인에게 채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에요'는 어미로서,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인다. 다만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서술격 조사 어간 '이'가 붙고 그 뒤에 어미 '-에요'가 붙은 '-이에요'의 준말 '예요'가 쓰이므로, '어디예요/보내지 않을 거예요.'와 같이 쓰게 된다.

한편, '하다' 앞의 받침이 'ㄱ, ㄷ, ㅂ'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소리일 경우에는 'ㅎ'이 남아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거센소리가 된다.

- ① 영식이는 바로 제 친구예요.
- ② 이것은 작년 것이 아니라 올해 햇곡식이예요.
- ③ 당신을 범죄자 취급한 것은 아니예요.
- ④ 생각건대, 그 대답은 옳지 않을 듯하다.
- ⑤ 그 일에 익숙지 못하면 그만 두도록 하여라.